

환경기기 국산화의 선구자

-전국을 연계한 자동화시스템 개발-
(Telemetry System)

(주)정엔지니어링

□ 편집부 □



'87. 방지전에서 계측기기 부리핑을 하고 있는 김 정호 사장

맑고 깨끗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참다운 환경보존을 할 수 있으리라.

모범업체로 꾸준히 발달움해 오고 있는 정엔지니어링을 이달의 환경업체로 선정하였다.

他 환경기업에 비하면 너무나도 이색적이었고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멋스러움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대하는 듯한 정취를 자아내게 했다.

눈발이 펼쳐진 자연환경 속에 비둘기집 같이 아름다운 저택!

응접실을 이용하여 사무실을 꾸며 놓고 사용

하고 있었으며 그 옆건물에는 공장과 연구소가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이 저택에서 김사장 내외를 비롯하여 자녀(고1, 중2) 들과 들과 노모님을 모시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어느 환경을 한다고 자부하는 이들못지않게 겸허하고 진실한 환경인들의 모습 그 자체였다.

취재길에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순수한 시골의 향토길이요 들풀들이 여기 저기에서 상긋한 풀내음을 풍겨 주었다.

“우리는 시골과 환경인이지요” 김정호(40세) 사장은 말하면서 10여년전 정엔지니어링을 설립하여 국내최초로 대기오염 측정기를 개발해 환경계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시절을 상기하는 듯하다.

수원시 이목리에 위치한 정엔지니어링은 1979년 전문과학 측정기기 제조업체로 설립하여 환경오염 측정기중 대기오염 측정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내어서 그당시 외국에서 많은 환경기기들을 들여오고 있었고 국산선호도도 좋지 않았던 환경계에 시운전, 사후관리, 기술관리로 수입품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환경업체를 장악하기도 한 저력을 지니고 있다. 김사

장은 2년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환경관리인 세미나에서 기계를 직접운전하며 교육을 실시, 80년전반에 시장 점유율 50%와 80년 후반부터는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다.

현재는 연간 25억정도가 수입대체 가능하고 개발비 70%가 국가보조를 받고 30%는 정엔지니어링에서 투자하여 10여년동안을 환경기기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여온 우수업체로 과학기술처와 정부지원 2백업체중 가장 작은 업체지만 내실과 능력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79년 3월 전문과학 측정기기 제조업으로 설립하여 환경오염 측정기 중 대기오염측정기를 국산화하여 시판, 1982년 대기오염 측정기 200대 판매달성과 동시에 개인기업에서 법인체로 전환, 1983년 6월 수질오염 자동계측기 국산화 성공으로 판매개시, 1984년 공업용 컴퓨터(공해 측정분야) 및 대기오염 자동 측정기 국산화에 성공하여 판매개시, 1980년부터 1986년까지 국제환경오염 방지기기전시회에 출품(KOEX), 1984년 10월 COD Meter 국산화에 성공, 1985년 6월 환경청장 표창 수상, 1985년 7월 폐수적산 유량계 국산화 성공 시판, 1986년 1월 Dust 반자동 등속형측정기 국산화 성공, 1986년 3월 SO₂ 자동측정기 국산화성공, 1986년 4월 OIL자동 측정기 개발에 성공, 86년 7월 신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 1986년 공업진흥청 계량기 제조업 허가, 1987년 최근에는 TMS 수질(COD, FLOW, PH, DO메타) 및 대기(Dust, SO_x, NO_x, CO, O₂) 연속자동 측정기를 개발하여 공해용 자동계측기를 완성하는데 성공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소재산업에 주력하여 87년 현재까지 1억 6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전국을 연계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부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공인된 제품을 출고할 예정으로 있어 PH메타를 제외하고 공해계측기의 모두가 국산화가 이루어 진다고,



특히 생산보다 서비스를 먼저 한다는 각오로 전국을 3일이내에 기계를 살려주자는 슬로우전을 가지고 신속한 사후관리에 대처해 나가고 있어 기술추적과 애프터서비스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특히 신용으로 안심하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김사장 내외의 공이 크다.

전문경영인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모의 내조와 사업수완을 아낌없이 발휘하며 내부관리를 담당해온 타인지 회사 분위기도 아늑하고 평안해 보인다. 김사장은 전문엔지니어로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75년도부터 환경관리기사로 출발하여 환경계측기 전문회사를 설립하게 된것, 회사규모는 18명의 직원이 호흡을 같이하고 있으며 현재 사무실을 연구소로 운영할 계획이며 DO Meter FLOW Meter를 일본에 8월부터 수출할 예정인데 의외로 수출가격이 국내시판 가격보다 높다고, 김사장은 평소 하면된다는 생각을 갖고 성실하게 가능성 있는 것을 보는것이 그의 좌우명이라고 한다.

애국하는 길이 따로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정엔지니어링처럼 경영인들이 앞장서서 국산화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곧 애국하는 길이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환경기기 국산화의 선구자로서 환경계의 주춧돌이 될것이다.